



얼

굴

인구 350만명 국제도시 부산은 우리나라제일의 항구도시이며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마 어마하게 큰 부산 직할시의 보건사회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이 보사국장 申相墩씨—.

그러기에 申국장에게는 한치의 여유있는 시간이 없다.

10개 区, 1출장소, 213동, 350만 시민의 보사행정의 總帥 申국장은 하루의 寧日도 없는것이다.

마음씨좋은 中年신사답게 민주적 처신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申相墩국장님이라고 기자와 동행한 부산지부 權五中국장이 슬쩍 귀뜸해 준다.

——부산시청이 가지고 있는 보사행정의 자랑거리라던가 특수한 사업이 있다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장 申相墩씨

『우리 부산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83년 84년에 이어 금년에도 일본 뇌염등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염병 없는 부산」이란 명예로운 칭호도 생겨났습니다. 하하〃〃—.』

유쾌하게 웃으시는 申국장의 모습에서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강인한 의지가 돋보여 한층 믿음직스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전염병없는 부산을 만들기까지는 남모르는 노고와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느꼈다.

우선 관내에 「새마을 방역단」을 조직했다고 한다. 5백43개 방역단을 7천91명의 인원으로 짜고 연막기 3백11대, 분무기 1천 2백40여대를 가지고 우선 洞이나 統, 골목등 취약지 소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순전히 시민자율방역반으로서 나의 건강을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라

고 강조한다.

『우선 특별로 조직을 해서 처음 시도한것이 성공을 거둔것이지요. 자율적으로 한것이 성공을 거두자 市에서는 약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천 4백만원어치에 해당하는 많은 약품이었습니다.』

또한 목표인원 전원에게 예방접종도 완료해서 소위 전염원을 완전차단하는것이었다고 한다.

申국장은 또한까지 자랑거리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까지는 간디스토마 치료사업입니다. 부산은 낙동강 하류지역을 끼고 있기때문에 예로부터 민물고기를 회로 쳐서 날로 먹는 습관이 내려오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간디스토마 감염이 많이 되어있었지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연차 계획에 의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간디스토마 치료사업이 정부의 주도로 전개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치료 목표인원 3만명을 잡아 3만118명을 검사 1백 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결과 3천 4백19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여 무료로 치료 해서 건강을 찾게 해준것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 뿌듯합니다.』

——부지부장님으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 건협이나 기협의 지원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기협사업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감염율도 많이 감소되어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수 기생충인 요충 간디스토마등은 홍보와 동시에 구충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은 적어도 88올림픽때까지는 완전구충을 해서 많은 외국손님이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선진국의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협사업은 아직도 초창기의 어린때를 못벗어 났다고 봅니다. 이사업은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입니다. 왜 여러가지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필요한가? 연 1회의 정기검사가 왜 필요한가? 등이 홍보되어야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에서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 반회보, 부산시보등에 건협, 기협사업을 소개하고 검사를 권유하고 있지요. 전체 부산시민이 보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를 견우고 있습니다.』

지부에서 하는일 검사종목등을 알려주어 일반시민이 자율적으로 검사에 참여케 유도해야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기생충 감염율이 0%로 저하될 때까지는 행정지원도 계속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것이 곧 감염율 0%로 저하시키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힘 주어 이야기하는 申相墩국장의 모습에서 어떤 철학적 사명감까지 읽을 수 있어 기자는 흐뭇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시는동안 어떤 左右銘을 가지시고 공무에 임해 오셨는지요? .

『우리 人生 전체가 그러하지만 공직생활에 발을 들여 놓은 이래, 오로지 “誠實” 하나를 좌우명으로 삼아 일해왔습니다. 每事에 임할때는 누가 해도 할 일, 내가 맡았으니까 더욱 더 효과적으로 잘 하자는 의욕으로 일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창조적 사상이 더 곁들여져야 하겠지요.』

말씀하는 사이에 풍겨나오는 체취는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민주적 지도와 처신, 서민적 생활의 기풍이 역역히 나타나 申국장의 수하 사람들은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수고를 알아주는 상사를 모시고 있구나하고 생각해 본다.

—— 일하시는 사이 틈틈히 가지시는 취미는 어떤것이 있으신지요?

『나는 動的인 취미 보다는 靜的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취미라면 書道입니다. 書道三味境이란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道를 못느끼실 겁니다.』

동석한 權五中국장과 김병섭과장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곳 부산시청 현판도 申局長님이 쓰신겁니다. 부산시청에서 申국장님의 글씨 솜씨는 이미 정평이 나 있어서 아무쪼어의 경지가 아니라 전문적·서도의 大家이십니다.』 号는 素山.

또 한 가지 취미는 蘭가꾸기라고 했다. 자생난 보존회 고문직도 맡고 있다. 申국장은 원예중에서도 四君子중 으뜸인 蘭을 가꾸어 이미 一家見을 이룬 大家이기도 하다. 원예 가꾸기중 蘭을 택한 이유는 그가 가지는 특유함과 孤高함과 청초함에는 오직 머리가 숙여질 뿐이라고 한다.

—— 蘭과 더불어 한평생, —— 申국장의 인격을 미루어봄직 하다.

申국장은 부산 西구청장, 동상공운우국장, 부산진구청장, 84년에 현 보사국장에 취임한 엘리트 공무원. 부산대卒. 부인 成勝子女史와 자녀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내무부장관상, 적십자총재상 수상도 했다.

사회정화포어

동근달 밝은 마음 서로 돕는 고운 마음

• 한국기생증박멸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정화주진위원회